

# 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활동 본격

정동채 전 장관·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등 민간위원 15명 위촉

“문화전당 일부위탁 운영기간 연장·아특법 연장 등 적극 검토해주길”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오전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참석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 정동채 조성위원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섭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 광주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전당 일부위탁 운영기간 5년 연장, 아특법 사업기간과 유효기간 5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양우 문체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에서 정동채 위원장, 송진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조성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8기 조성위는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성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등 15명이다. 이들은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등 중요사항

신봉우 기자

## 전남도, 中企 경영안정자금 1400억 전격 지원

병의원·여행·숙박업·여객화물운송업까지 대상 확대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 및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을 1일부터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 대한 접수도 시작, 이번 추가 긴급자금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천식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악화 및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직접 피해기업을 포함한 전남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본원(무안)과 동부출장소(순천)에서 동시에 긴급·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 광주 학교 원격수업 전환하나

장희국 교육감 “학생감염 없지만 학부모 요구 크다면 검토”

광주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1일 까지 불과 5일만에 총 3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1일 광주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크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1인 가구’ 첫 실태조사

###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 광주 전체 가구의 30%를 넘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24일 까지 1인 가구 1500여명을 대상

으로 하는 설문조사, 독거노인 등 각 계층별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 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을 연 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고립감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http://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고소득층: 240,839원  
4분위: 125,531원  
3분위: 79,147원  
2분위: 48,103원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5.3배

한국건강보험공단

한국언론자치센터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자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용복남에서 개인한 즐거운 일입니다.

## 동구, 아름다운 길에 아름다움을 더하다

광주 동구가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미로센터 도심입체녹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인 궁동 미로센터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광주 문화 예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앵커시설이다. 미로센터는 특히 예술의 거리에 위치에 있어 ‘아름다운 길=미로’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번 육상정원 사업으로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움을 더하게 됐다.

도심입체녹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금목서, 동근소나무, 면나무 등 수목 9종 135주와 가우라, 송엽국, 좀눈향 등 초화류 10종 2,790본을 식재했다.

## 서구, 2020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개막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일 오후 7시 2020년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을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3년부터 운영해 온 광주 서구의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은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국악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역 국악의 메카로써 자리매김을 확고히 해오고 있다.

또 매년 40여회 17년간 622회 공연으로 매회 120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국악 문화의 정착은 물론 지역 주민과 광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의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은 당초 2월 6일부터 계획됐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급까지 휴관됐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 남구, 관내 초교 정문 앞 21곳 황색 복선 설치

광주 남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절대 금지를 안내하는 황색 복선 설치 공사를 실시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배운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21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복선 도색 공사가 진행된다. 이 공사는 7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황색 복선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주·정차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구간임을 표시한다. 잠시나마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 북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 과학교실 운영

광주 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북구는 “이달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저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기회가 축소된 초등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과학교실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유익한 방과 후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광산구, 4개 지구 1083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광주 광산구가 1,083필지, 54만4천771㎡를 대상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으로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동호1지구 360필지, 동호2지구 332필지, 두정1지구 202필지, 두정2지구 189필지로, 6~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광산구는 4월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와 (주)한국측량원을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8월 중순까지 건축물·담장·현황 도로 등 토지의 실제 현황을 측량한다.

임형택 기자